

#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

송 춘 영\*

## 목 차

- |                  |                   |
|------------------|-------------------|
| I. 머리 말          | 2. 학생의 실태         |
| II.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 IV. 박물관 교육의 방법    |
| 1. 박물관의 개념과 기능   | 1.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
| 2. 박물관의 종류와 현황   | 2. 교과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 |
| III. 박물관의 교육의 실태 | V. 맺음 말           |
| 1. 교사의 실태        |                   |

## I. 머 리 말

### 1.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속에서 한국인으로서 세계 문화에 자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나 정보 산업 기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세계사적 시야에서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상이 남긴 민족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여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화적 자주 의식과 자긍심을 갖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박물관 교육을 통한 민족 문화의 유산을 바르게 이해시켜 문화재를 애호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museum)은 단순한 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사회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능 집단이며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조직체이다<sup>1)</sup>.

즉 인류, 고고, 미술,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를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sup>2)</sup>.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수

1) 倉田 公裕, <博物館教育論>《博物館教育と普及》博物館學講座 10, 雄山閣出版社, 1979, p. 40

2)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第 2條(法律 第 4410號), 1991, 11. 30

그러므로 박물관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는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점에서 박물관은 민족 문화 교육을 위한 생동적인 교육의 장으로 중요시 여겨 왔으며, 각급 학교의 사회과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박물관 견학이나 문화재 지도의 중요성과 그 지도를 강조하여 왔다<sup>3)</sup>.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박물관 교육 방법에 관한 이해 부족, 박물관 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의 부진, 각급 학교의 행·재정적 뒷받침의 미흡, 박물관 견학을 위한 지리적 거리와 교통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교육에서는 박물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물관 교육에 관한 현장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 성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4)</sup>.

따라서 박물관 교육에 관한 초·중·고등학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박물관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 2. 연구 목적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 박물관 교육에 관한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여 박물관 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둘째 : 박물관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 교육의 개선과 교육 효과

- 3) 제 5차 및 제 6차 국민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지도상의 유의점] 및 [방법]에 견학·조사·관찰등의 학습 활동과 탐구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4-2 교재 (5차)와 5-2 교재 (6차)에 [박물관과 문화재] 단원을 설정하여 지도하도록 한 것은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4) 박물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직접적 연구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찾아볼 수 있다.
  - 鄭 灌, <국민학교에서의 박물관 교육>《역사교육논집》13·14합, 역사교육학회, 1990
  - 日本博物館協會, <博物館の教育活動-1970年の事例>, 1971
  - 日本博物館協會, <博物館の教育活動-1971年の事例>, 1972
  - 武田 厚外, <館種別博物館の教育·普及と設備施設>《博物館教育と普及》博物館講座 10, 雄山閣出版社, 1979
  - 下津谷達南, <郷土博物館>《博物館教育と普及》博物館講座 10, 雄山閣出版社, 1979
  - 宏瀬 鎮, <現代社會と博物館>《地域社會と博物館》博物館講座 4, 雄山閣出版社, 1979
  - Connolly, Louise. The educational value of museum. New York, N. J, New York museum assn, 1914
  - Forbes. Edward. Educational use of museum. London, Museum of Practical Geology, 1853
  - Olofsson, Ulla Keding, ed. Museum and children. Paris, UNESCO, 1979
  - <Monographs on education 10>

에 기여 하며

셋째 : 박물관 교육에 관한 현장의 실태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 교육을 위한 정책 결정 자료의 일단을 제공함에 있다.

### 3. 연구 문제

첫째 : 국내의 박물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 박물관 교육에 관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셋째 : 박물관 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와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에 관한 수업 방안을 이론적 기초 연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 4. 연구 방법

첫째 : 문헌 연구

문헌 연구의 대상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현황 자료와 박물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박물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박물관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로 하였다.

둘째 : 조사 연구

#### (1) 조사 대상

교사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 교사 80명,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각 50명 계 180명을, 학생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남·여 각 100명씩 계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율은 교사가 92%, 학생이 95% 정도였다.

#### (2) 조사 도구

1) 교사용은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박물관 교육 계획 수립, 박물관 수업 경험, 견학 박물관명, 박물관 견학 회수, 교사의 태도(견학전후),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 방안 등에 대하여 선다형과 자유 기술형의 설문지를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2) 학생용은 박물관 수업에 관한 취향도와 목적,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박물관 견학 시기, 박물관 견학 태도, 박물관 수업 경험, 박물관에 함께 가본 사람, 견학시 가장 알고 싶었던 점, 박물관 견학시 느낀점, 견학시 어려웠던 점 등에 관한 선다형과 자유 기술형 설문지를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 (3) 조사 방법

교사용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수원 강의시에 직접 설문 하였으며, 학생용은 가까운 대구시

내는 출장 설문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우송법을 적용하였다.

#### (4) 조사 시기

1994년 4월 - 1995년 2월

#### (5) 결과 처리 및 해석

1) 선택형 설문은 각 항목마다 반응 빈도를 계수하여 백분비를 산출하고 빈도 비율은 문항별 비중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선택형 중 제한 선택형은 서열 빈도만을 계수 대상으로 하여 각위별 단계별 환산점을 환산 사용하여 총점을 산출, 그 서열을 평정하였으며, 자유 기술형은 기술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통적인 것은 포괄하고 반응 빈도별로 계수하여 그 서열을 평정하였다.

2) 결과의 해석은 표집 총수에 비하여 각 항목별 비율중 10%이상되는 것만 해석 대상으로 삼고, 그 미만은 해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다만 표집을 편의상 분류하여 대체적인 경향과 실태를 파악하려는 면에서 해석을 그쳤다.

### 5. 용어의 제한

본고에서 박물관 교육이라 함은 박물관 견학, 박물관 수업, 박물관 자료의 활용 등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박물관 교육에 한 하였다.

## Ⅱ.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 1. 박물관의 개념과 그 기능

#### (1) 박물관의 개념

박물관이라 하면 골동품의 진열장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되어 낡았거나 오래된 물건들을 모아 전시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박물관은 오래되고 낡은 물건만을 진열·전시하는 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하겠다.

박물관에 대한 정의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것으로 보인다. 즉 1946년 11월 유엔의 유네스코 국제박물관회의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ICOM)에서는 “박물관이란 일반에게 공개된 미술, 공예, 과학, 역사 또는 고고학 자료를 비롯하여 동, 식물원을 포함한 모든 수집을 포괄한 곳이다”라고 하였고, 1951년 7월 런던 국제박물관회의 현장 2장에는 “박물관은 예술, 미술, 과학 및 기술 관계의 수집품의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류를 각종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연구하여 그 가치를 고양하며, 공중의 위락과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개함을 목적으로 공익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상설의 시설을 일컫는다. 또 공공 도서관, 공공 기록 보관소(문서류) 등의 상설 전시시설을

갖춘것도 박물관으로 취급된다”고 하였으며, 1962년 7월 네델란드 국제박물관대회에서는 “박물관이란 연구·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적 과학적 의의있는 수집 자료를 보관 하여 전시하는 상설 기관은 모두 박물관으로 볼 뿐만 아니라

- 1) 공공 도서관 및 문서관으로 상설된 전시장
- 2)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적 기념물 및 寺·社의 보물, 종교적 건물 등 그 부속건물 사적 유적 및 자연 경관 지역
- 3) 생동하고 있는 것을 전시한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생태 사육관 및 기타의 기관
- 4) 자연 보호 지역
- 5) 과학 센터 및 천문관(프라네타리움 : planetariums)이라 하였으며, 1974년 6월 코펜 하겐 국제박물관대회에서는 “박물관은 사회와 그 발전에 봉사하기 위하여 인류와 그 환경에 관한 물질 증거를 연구하고 교육과 오락을 목적으로하여 연구하며 교육과 오락 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보관·연구·전달·전시하는 비영리적 목적의 항구적 기관”이 라고 하면서 제 4조의 박물관 정의에는 아래와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1) 도서관 및 공문서관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보존 시설과 전시실
- 2) 자연, 고고, 민족의 기념물, 유적, 사적 및 박물관적 성격을 갖는 현지에서의 수집, 보 존 및 전달 활동을 행하게 되는 곳
- 3)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생태 사육관과 같이 생동하는 것을 전시하는 시설
- 4) 자연 보호 지역
- 5) 과학관 및 천문관(프라네타리움)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sup>5)</sup>.

李蘭暎은 《博物館學入門》에서 박물관이란 인간 환경의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 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 시설이라 하였다<sup>6)</sup>.

위의 제견해를 보았을 때 박물관의 정의는 인류, 역사, 考古,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 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하 겠다<sup>7)</sup>.

이에 대해서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sup>8)</sup>.

이상에서 보면 박물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수족관, 민속박물관

5) 尹世英,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古文化》21,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2, pp.39-40에서 재인용  
 6) 李蘭暎, 《博物館學入門》. 三和出版社, 1993, p.11  
 7) 註2)와 같음  
 8) 위와 같음

관, 민족박물관 이외에도

- ① 보존 수리의 연구 기관, 도서관, 자료 센터에 부속되는 항구적인 전시 시설
- ② 자연, 고고, 민족학 관계 기념물 및 보호 구역, 박물관과 같은 성격의 사적, 건축물 등에서 수집, 보존하여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곳
- ③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생태원, 동물의 사육장, 표본 전시관 등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는 곳
- ④ 자연보호구역
- ⑤ 과학 센터 및 천문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sup>9)</sup>.

## (2) 박물관의 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박물관의 정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연구외에도 교육과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르는 평생 교육에 의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박물관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 교육의 장으로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박물관은 인류 환경의 증거물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도 중요시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이라 함은 박물관 자체로서의 교육적 기능과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 활용이라는 면에서의 교육적 기능이란 두가지 면에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박물관이 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에서 행하는 사업 그 자체가 박물관 교육을 내포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지식과 자기개발의 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소로서 전시, 해설, 자료에 대한 강좌, 강습회, 자연 관찰, 견학,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의 제공,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한 기능을 말한다. 즉 박물관의 교육 활동으로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시 사업, 출판 사업, 교육 사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들 수 있다<sup>10)</sup>.

후자는 학교 교육에서 능동적으로 박물관을 지식 재창조의 장소로서 교육 내용과 관련시켜 박물관을 찾아가 견학, 관찰하고 답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과 역사 수업을 박물관에 가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생동적인 현장 수업을 함으로써 그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박물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만 한다. 박물관은 자체의 교육적 기능에 거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학교 교육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 오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일환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尹世英씨는 대학박물관도 일반 박물관 같이

9) 李蘭暎, <앞의책>, p.11

10) 吉村 典夫, <博物館の機能> <博物館教育と普及> 博物館學講座 8, 雄山閣出版社, 1979, pp. 106-107

고고, 역사, 미술, 민속품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 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교육적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1)</sup>.

이것은 대학박물관에서 수집, 보관, 전시, 연구된 자료들이 특수한 학문을 하는 대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회 교육의 기능을 대학이 맡아서 수행해야 함은 물론 사회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학 박물관의 기능과 사명]에 대한 기념 특집호(1986)에서 대학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적 기능, 학술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급하였다<sup>12)</sup>.

대학박물관은 그 자체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발굴·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에 교육적 기능을 다할때 그 기능을 다할수 있을 것이다. 전시된 자료나 발굴, 조사 연구된 자료들은 학교와 그 지역 사회에 홍보, 안내되고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법률제 4410호: 1991.11.30) 제 5조에는 박물관의 사업을

- ①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 ②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조사·연구
- ③ 박물관 자료의 보존, 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④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 ⑤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 ⑥ 국내외 다른 박물관및 미술관과의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 협력
- ⑦ 기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기능이 수집, 보관, 전시, 조사 연구에만 국한하는 것은 고전적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박물관을 이용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국민이며, 직원은 일반 공중의 이용을 편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기능이 RICE (Research, Inclosure, Conservation, Exhibition)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박물관 직원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물관은 지식의 재창조와 이용자의 휴양·오락 장소로서의 쉼서비스적 기능(Recreation), 정보 자료원으로서의 기능(Information), 지식·정보의 보

11) 尹世英, <앞의논문>, 참조

12)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許善道,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古文化》28·29합,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6, 9

李隆助, <大學博物館의 學術的機能과 使命>《古文化》28·29 합

鄭永和, <大學博物館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使命>《古文化》28·29 합

급창으로서 전달·교환의 기능(Communication),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기능(Education)등을 찾아볼 수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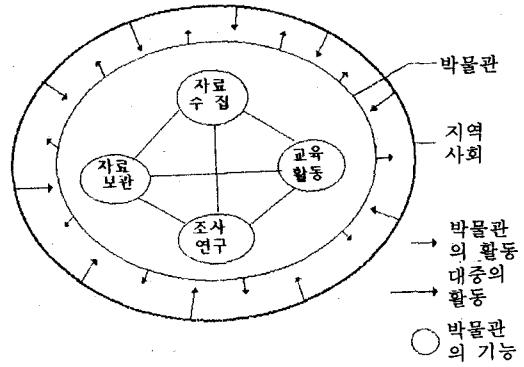
박물관이 종래의 수집·보관·전시·연구의 기능으로부터 이제 이용자의 편에서 적극적인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박물관이 갖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중의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기능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물관의 기능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도식해 보면 <도 1>과 같다<sup>14)</sup>.

이상에서 보았을 때 박물관의 1차적 기능(고전적 기능)은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연구 등 4가지이나 단순한 수장고의 기능이나 조사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박물관의 2차적 기능(현대적 기능)은 1차 기능의 바탕위에서 자료의 활용, 이용등·교육적 기능과 휴식, 오락의 서비스적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적 기능은 실내 기능(Indoor기능)으로 관내 전시, 각종 강좌, 세미나, 영상 활동 등과 실외기능(Outdoor)으로 관외 전시, 이동(순회)전시, 야외 답사, 견학, 조사, 채집회 등을 들 수 있다. 박물관에 관한 홍보 자료(팸플렛, 해설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안내장 등)를 만들어 학교와 지역 사회에 홍보하여 박물관을 찾아 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박물관 직원들이 이용자의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과 역할, 휴식처와 오락적 서비스적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은 역사 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애호정신을 기르는데 중요한 장이며 역사 수업에 있어서 탐구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교육장으로 반드시 견학을 하거나 박물관 수업을 하여야만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이 갖는 그 교육적 기능은 학습자가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① 생동적인 실물 자료를 접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처음으로 다종 다양한 전시 자료를 봄으로써 학습자들은 지적 호기심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② 역사 수업 시간에 사진이나 그림 등 간접적인 자료를 접하다가 실물 자료를 직접 접함으로써 문화 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



<도 1> 박물관의 기능과 대중과의 관계

13) 吉村 典夫, <위의 논문>, 참조

14) <도1>은 賀藤有次·推名仙卓, <博物館 핸드ブック> 3, 雄山閣出版社, 1990, p.43의 그림을 축약한 것임



③ 조상들의 문화 창조 능력과 태도, 의지, 고뇌등을 이해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숭경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애호,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④ 박물관 자료를 통하여 민족사의 흐름과 특색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박물관 자료인 문화재를 관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문화적 자주 의식을 기를 수 있다<sup>15)</sup>.

이같은 교육적 기능을 감안할 때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나 사회과 교육 담당 교사들은 박물관을 통한 역사 수업(박물관 수업을 통한 역사 수업)을 위하여 박물관 수업을 연중 진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박물관이 갖는 교육적 기능은 박물관 자체의 본연의 기능과, 학교의 박물관 수업의 장으로서 갖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박물관은 후자의 경우 보다 친절하고 성의있는 협조자로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2. 박물관의 종류와 현황

### (1) 박물관의 종류

박물관은 설립 운영자나 전시 자료의 내용, 또는 이용자나 전시 장소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종류를 이같은 기준에 의거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16)</sup>.

#### 1) 설립·운영자에 따른 분류

① 국립 박물관 : 문화체육부의 설치법에 의거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국립 중앙박물관, 지방에 설치된 국립 경주박물관,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중앙과학관, 국립 중앙민속박물관 등은 이에 속한다.

② 공립 박물관 :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부산 시립박물관, 광주 시립박물관, 한밭 교육박물관, 군립 의령박물관등은 이에 속한다.

③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종교단체,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삼성 출판박물관, 호암 미술관, 신세계 한국 상업박물관, 온양 민속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중문 민속박물관, 나주 배 박물관등은 이에 속한다.

④ 대학 박물관 : 국·공·사립대학에서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국립대학 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박물관 등), 공립대학 박물관(서울시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 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등)으로 분류된다.

#### 2) 전시 자료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종합 박물관 : 인문 사회 과학 및 자연 과학의 양분야에 해당하는 자료를 종합적 입장에서 취급하는 박물관 즉 한 박물관 건물 안에 2개 과학 이상의 박물관 자료를 분야별로 코

15) 朴泰岩 外, 《社會科教育》, 螢雪出版社, 1991, p. 351

16) 李蘭暎, 《앞의책》, pp. 14-18

너를 만들어 전시해 놓은 박물관으로 국립 중앙박물관은 대표적 종합 박물관이다.

② 전문 박물관 : 역사, 과학, 산업, 민속 및 자연사 등 특정 분야의 박물관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으로 역사학 박물관, 미술 박물관, 이공계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설치 지역에 따른 분류

① 중앙 박물관 : 한 나라의 수도 중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중앙과학관, 국립 중앙민속박물관은 이에 속한다.

② 지방 박물관 : 시·도나 군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국립 경주박물관, 인천, 광주, 부산 등의 시립박물관, 목포의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등은 이에 속한다.

### 4) 이용자에 따른 분류

① 공공 박물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국립 박물관, 시립 박물관, 군립 박물관은 이에 속한다.

② 학교 박물관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대학 박물관은 이에 속한다.

③ 아동 박물관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어린이 박물관은 이에 속한다.

④ 특수 박물관 : 의학, 자동차, 유리, 종이, 화장품, 운동구 등 산업체의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체의 소개·선전·홍보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의학 및 약학 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종이 박물관, 화장품 박물관(태평양 박물관), 스키 및 마사 박물관, 출판 인쇄 박물관, 농업 및 상업 박물관 등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특수 박물관은 산업체의 창립 기념 사업으로 회사의 이미지 부각, 창업자의 위업 과시, 기업의 홍보 등을 위하여 종래의 회사건물을 이용하여 역사적 문화 유산과 기념물로 이용하려고, 또는 사원 교육이나 사회,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려고 설치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 박물관은 공공성과 문화성이 높으므로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박물관 현황

우리나라의 박물관 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상은 잘 알수 없으나 여기서는 문화체육부에서 1994년 발간한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게재된 등록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을 지역별로 보면 <표 1>과 같다<sup>17)</sup>.

먼저 등록 박물관을 보면, 모두 6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92년에 등록한 것이 약 47%인 32개, 1993년에 등록한 것이 44%인 30개, 1994년에 등록한 것이 약 7%인 5개로 92·93년간에 등록한 것이 많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약

17) <표 1>은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1994)에 수록된 등록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대학 박물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며 1995년도 자료는 제외하였다.

<표 1> 지역별 박물관 수

지역	구분	등록 박물관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계
서울		21(30.8)	7(31.9)	24(31.2)	52(31.1)
부산		1( 1.5)	-	7( 9.1)	8( 4.8)
대구		1( 1.5)	1( 4.5)	3( 3.9)	5( 3.0)
인천		2( 2.9)	-	1( 1.3)	3( 1.8)
광주		2( 2.9)	1( 4.5)	5( 6.5)	8( 4.8)
대전		3( 4.4)	1( 4.5)	4( 5.2)	8( 4.8)
경기		11(16.2)	3(13.7)	4( 5.2)	18(10.7)
강원		4( 5.9)	-	4( 5.2)	8( 4.8)
충북		3( 4.4)	1( 4.5)	6( 7.8)	10( 6.0)
충남		2( 2.9)	3(13.7)	2( 2.5)	7( 4.2)
전북		1( 1.5)	1( 4.5)	5( 6.5)	7( 4.2)
전남		3( 4.4)	1( 4.5)	1( 1.3)	5( 3.0)
경북		4( 5.9)	1( 4.5)	5( 6.5)	10( 6.0)
경남		6( 8.9)	2( 9.2)	5( 6.5)	13( 7.8)
제주		4( 5.9)	-	1( 1.3)	5( 3.0)
계		68(100)	22(100)	77(100)	167(100)

31%인 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로 16.2%인 11개, 경남이 약 8.9%인 6개, 강원, 경북, 제주도 각각 5.9%인 4개이다.

다음은 국립 박물관을 보면, 국립 박물관은 1908년 9월 李王家 박물관을 모태로 출발한 것이 효시이다. 이후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1913년 9월에 국립 경주박물관이, 1934년에는 국립 공주박물관이 개관되었다. 해방후 1946년 국립 중앙민속박물관이 개관된 이래 1994년 12월 15일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지방에 18개의 박물관이 개관되어 현재는 22개의 박물관이 있다. 이 22개 중 약 32%인 7개가 중앙(서울)에 있으며, 경기도, 충남에 각 3개가 있으며, 경남 2개, 대구·광주·대전·충북 전북·전남·경북에 각 1개씩 있을 뿐 부산, 인천, 강원도, 제주도에 는 하나도 없다.

대학 박물관을 보면, 일제시대인 1934년에 고려대학 박물관이, 1940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개관되었고, 해방후에는 1950년대에 5개, 1960년대에 15개, 1970년대에 22개, 1980년대에 28개, 1990년대에 3개가 개관되었으며, 미개관 1개(한국외국어대박물관), 모두 77개의 박물관이 있다. 이들 77개의 대학 박물관을 설립자별로 보면, 국·공립대학 박물관이 36.4%인 28개(공립대학 박물관 1개 포함)이고 나머지 63.6%인 49개가 사립대학 박

물관이다<sup>18)</sup>.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2%인 2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으로 9.1%인 7개, 충북이 7.8%인 6개이며, 다른 시·도는 적게는 1·2개로 부터 5개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면, 총 167개의 박물관 중 서울이 전체의 약 31%인 5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경기도로 약 11%인 18개, 경남이 7.8%인 13개, 경북·충북이 각 6%인 10개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박물관의 명칭을 보면 22개의 국립 박물관 중 박물관이란 명칭을 붙인 것이 16개, 전시관 및 과학관이 각 2개, 기념관과 미술관이 각 1개이다. 등록 박물관 68개 중 박물관이란 명칭을 붙인 것이 47개, 미술관이 18개, 사료관(실)이 2개, 기념관 1이며, 대학은 77개 모두 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여러 명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물관의 범주에 속한다.

등록 박물관 68개를 소장 자료별로 보면, 고고 미술과 민속 관련 박물관이 각 24%인 1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현대 미술관련 박물관이 19%인 13개, 고고 유물및 미술, 민속 자료 등을 함께 수집·보존·전시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이 9%인 6개이다. 그외에도 종교 미술 박물관이 4개, 농업 박물관이 3개, 출판·인쇄 박물관이 2개, 스포츠 관련 박물관 2개, 상업·교육·화폐·음악·자연사·등대 박물관등 전문 박물관이 각 1개이다. 이들 68개의 박물관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연구,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박물관이 2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집·전시·연구 등과 출판물 발간, 사회 교육을 하는 박물관이 15개, 수집·전시·연구등과 출판물을 발간하는 박물관이 10개이며, 자료의 수집·전시·연구·발굴 등의 일을 하는 박물관이 8개. 그외에 박물관으로서의 1차적 기능을 하면서 각종 대회를 열거나 답사·출판·또는 연구지원을 하는 것이 각 3개, 순수 박물관의 고전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4개이다.

등록 박물관의 주요 사업 내용 중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은 모두 24개로 그 내용은 교양 강좌, 강연, 세미나 개최, 영화 상영 등이 17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생 대회, 놀이 지도및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이 4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3개이다. 68개의 등록 박물관 중 박물관 학교를 집적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15개로 그 내용은 미술관학교, 박물관대학, 어린이및 청소년 박물관학교, 박물관 교실, 문화 학교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과 시간 일정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즉 학교 교육과 관련시켜 박물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8) 대학 박물관 77개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공립대학 박물관 25, (교육대학 5, 산업대 2, 사립대학 1포함), 사립대학 47, 사관학교 3, 전문대 박물관이 2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167개의 박물관 외에도 鄭鎭鳳씨의 한국 박물관의 실태와 성격에 관한 분석적 연구(1995. 8. 경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밝힌 미등록대학박물관 19개소, 비등록박물관 189개소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향토 자료실, 사회 단체나 기업체에 서 설치한 전시관이나 미술관 등을 합치면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Ⅲ. 박물관 교육의 실태

#### 1. 교사의 실태

이 항에서는 박물관 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박물관 자료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 (1)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

<표 1>은 사회과및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1>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지역별·교사 급별·성별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중에서도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 하겠다.

<표 1>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대단히필요하다	57.1	51.5	61.1	61.8	54.1	60.0	59.5	56.8	61.3	48.7	60.8	55.4
다소 필요하다	35.9	45.6	33.3	20.6	37.8	32.5	35.7	40.9	28.0	45.9	34.8	36.4
거의 필요없다	0.6	-	1.9	-	-	-	2.4	-	-	2.7	2.2	-
전혀 필요없다	-	-	-	-	-	-	-	-	-	-	-	-
무 답	6.4	2.9	3.7	17.6	8.1	7.5	2.4	2.3	10.7	2.7	2.2	8.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 박물관 교육의 목적

<표2>는 박물관 교육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며, 박물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2>에서 보면, 교사들이 보는 박물관 교육의 목적은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하여가 전체의 2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문화재 애호심의 육성이 25.0%, 학습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24.4%, 학습한 지식의 재창출이 13.5%의 순이다. 박물관 교육의 목적은 민족

<표 2> 박물관 교육의 목적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 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학습 자료 수집	24.4	23.5	22.2	29.4	23.0	27.5	23.8	20.5	22.7	32.4	19.6	26.4
문화재애호심육성	25.0	20.6	25.9	32.4	33.8	15.0	19.1	27.3	25.3	21.6	21.7	26.4
문화재 감상	2.6	2.0	3.7	-	2.7	2.5	2.4	-	2.7	5.5	4.3	1.8
학습지식의재창출	13.5	14.7	11.1	14.7	12.2	15.0	14.3	18.2	12.0	10.8	19.6	10.9
문화재가치인식	26.2	27.9	27.8	20.6	24.3	22.5	33.3	20.4	29.3	27.0	28.3	25.5
무 답	8.3	10.3	9.3	2.9	4.0	17.5	7.1	13.6	8.0	2.7	6.5	9.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화재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재를 애호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습한 역사적 지식을 재창출하고 박물관을 통하여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것이다. 박물관 견학의 목적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문화재의 가치 인식이 27.9%, 학습자료 수집이 23.5%인데 대해서 중소도시는 문화재 애호심의 육성이 25.9%, 농산어촌은 문화재 애호심의 육성이 32.4%, 학습 자료의 수집이 29.4%로 지역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교사 직급별이나 경력별, 성별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3) 박물관 교육 계획 수립

<표 3>은 연간 지도 계획을 세울때 박물관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3>에서 보면, 박물관 수업을 위한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교사는 전체의 약 16%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박물관 수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교육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지역에 박물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지리적 거리와 교통 문제, 학교장과 교사의 적극적 자세, 박물관 수업 방법에 대한 이해 여부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표 3> 박물관 교육 계획(연간지도 계획)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 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반드시 세운다	3.2	2.7	3.7	2.9	2.7	2.5	4.8	4.6	1.3	5.4	6.5	1.8
때때로 세운다	12.8	11.8	11.1	17.6	21.6	7.5	2.4	13.6	9.4	18.9	15.2	11.8
거의세우지않는다	38.5	38.2	42.6	32.4	40.5	37.5	35.7	27.3	42.7	21.3	34.8	40.0
전혀세우지않는다	44.9	47.3	40.7	47.1	35.2	50.0	57.1	54.5	45.3	32.4	41.3	46.4
무 답	0.6	-	1.9	-	-	2.5	-	-	1.3	-	2.2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박물관은 역사적 자료의 보고이며 생동적인 역사 수업의 장으로 교실에서 학습한 역사적 지식을 재창출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사회 교육 기관이므로 연중 1-2회 정도는 반드시 박물관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 수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초등에 비하여 중등 교사들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때문이라 생각된다. 경력이나 성별로는 교육 경력이 적은 교사들과 여교사들이 많은데 이는 교육 경험과 박물관 수업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 여교사로서 학생의 인솔 지도에 조심성이 많기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물관 수업의 경험이 있다면 수업을 한 박물관의 이름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특히 농산어촌의 교사들은 한사람도 없었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사들의 박물관 견학 정도 즉, 교사들이 견학한 박물관은 중앙과 지방의 국립 박물관이 전체의 59.6%로 과반수이상이며, 대학 박물관은 12.2%이다. 그외에도 빈도는 얼마되지 않지만 민속박물관, 전문박물관, 독립기념관 등을 견학한 교사도 있었다<sup>20)</sup>. 박물관을 견학한 회수는 2회가 2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회 이상이 17.2%, 1회가 11.5%, 3회가 10.3%인 것을 보면 교사들의 박물관 견학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 (4) 수학 여행시의 박물관 견학 계획

<표 4>는 수학 여행시 박물관 견학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4>에서 보면, 수학 여행시 박물관 견학 계획을 세우는 교사는 전체의 약 60.4%로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박물관 견학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의 1이상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수학 여행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겠다. 박물관 견학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지역별로 보면 농산어촌은 약 23%인데 도시는 35%이상이 되며, 교사 급별로는 초등에 비하여 중등 교사가 많은데 이는

19) 박물관에 가서 직접 수업을 해본 박물관명과 수업 회수를 자유 기술토록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립 경주박물관 4회, 경북대학교 박물관 2회, 영남대학교·계명대학교·동아대학교·원광대학교 박물관과 온양 민속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이 각 1회였다.

20) 교사들이 견학한 박물관명을 자유 기술토록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립 박물관은 서울·경주·부여·공주 국립박물관 등 4곳을 견학한 교사가 전체의 26명, 경주 한곳만 견학한 것이 26명, 서울, 경주 2곳이 18명, 경주, 진주, 2곳이 17명, 경주, 부여(또는 공주) 2곳이 6명이며, 대학 박물관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8명,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3명, 부산대학교와 계명대학 박물관이 각 2명, 그외에 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대구대학교 박물관을 견학한 교사가 각 1명이며, 온양 및 제주 민속박물관이 각 4명, 독립기념관 6명, 그외에도 등대·산림·무기(육사·해사)·농업 박물관을 견학한 교사가 각 1명이다.

21) 교사들의 박물관 견학 횟수를 보면, 2회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회 이상 27명, 1회 18명, 3회 16명, 5회 15명, 4회 12명, 7회 5명, 6회 4명, 수회 4명, 8회가 1명이었다.

<표 4> 수학 여행시 박물관 견학 계획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 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반드시 세운다	28.3	29.4	27.8	26.5	41.9	20.0	11.9	22.7	26.7	37.8	23.9	30.0
때때로 세운다	32.1	30.9	35.2	29.4	31.0	37.5	28.5	25.0	33.3	37.8	39.1	29.1
거의세우지않는다	25.6	30.9	25.9	14.7	12.2	32.5	42.9	31.8	29.3	10.8	26.1	25.4
전혀세우지않는다	8.3	7.3	9.2	8.8	4.1	10.0	4.3	11.4	6.7	8.2	6.5	9.1
무 답	5.7	1.5	1.9	20.6	10.8	-	2.4	9.1	4.0	5.4	4.4	6.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관심부족과 견학 여건의 문제 때문이라 생각된다.

(5) 박물관 견학시 교사의 태도

<표 5>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박물관을 견학할 때 견학중의 교사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5>에서 보면, 박물관을 견학할 때 교사의 태도는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하거나 전문가의 안내와 설명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 각 32%, 학생과 함께 줄을 서서 견학한다는 것이 13.5%,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견학하도록 한다는 것이 12.2%로 비교적 바람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교사 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는 전문가의 안내와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35.2%로 가장 많고, 중학교는 안내를 하며 설명한다는 것이 35.0%, 고등학교는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견학한다는 것이 28.6%로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력별로

<표 5> 견학시 교사의 태도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 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①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견학	12.2	13.2	14.8	5.8	4.1	10.0	28.6	13.6	13.3	8.1	19.6	9.1
② 안내를 하며 설명함	32.0	28.0	35.2	35.3	33.8	35.0	26.2	18.2	34.7	43.0	34.8	31.0
③ 전문가의 안내와 설명들음	32.0	33.8	27.8	35.3	40.5	30.0	19.0	41.0	22.7	41.0	23.9	35.4
④ 학생과 함께 줄을 서서 견학	13.5	17.6	9.2	11.8	13.5	20.0	7.2	13.6	17.3	5.2	8.7	15.4
⑤ 무 답	10.3	7.4	13.0	11.8	8.1	5.0	19.0	13.6	12.0	2.7	13.0	9.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보면, 6년 미만의 교사는 ③번이 41.0%, 5년이상 9년 이하의 교사는 ②번이 34.7%, 10년 이상의 교사는 ②번이 43.0%이다. 이같은 현상은 성별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견학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차례로 줄을 지어 조용히 감상하도록 하거나 의문점을 기록하여 전문가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경우가 약 30%로 가장 많다. 이같은 경향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별, 교사 급별, 성별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박물관을 견학 할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재를 만들어 사용한 조상들의 노력과 숨결을 중시하는 것이 43.2%로 가장 많으나 문화재의 가치나 문화재를 만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같은 경향은 지역별, 교사 급별 성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박물관을 견학할때 학생들에게 대한 지도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물관 자료를 견학하는 태도에 대한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견학전의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견학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견학 관점과 태도에 대한 사전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견학 후의 지도

<표 6>은 박물관을 견학하고 돌아온 후에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6>에서 보면, 견학후 교사들의 지도 형태는 수업 시간에 교재와 관련 지도한다는 것이 50.6%, 시간 부족으로 사후 지도를 안한다는것이 19.2%, 특별 시간을 마련하여 발표, 토론하도록 한다는 것이 15.4%로 사후 지도를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

<표 6> 견학 후의 지도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사급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수업시관련교재와 관련지도	50.6	48.5	50.0	55.8	47.3	60.0	47.6	40.9	54.7	54.1	46.7	52.7
학생스스로 보고서작성제출	6.4	7.4	2.0	11.8	6.8	7.5	4.8	9.1	4.0	8.1	6.5	6.4
사후지도는 하지않음	19.2	23.5	20.3	8.8	8.1	25.0	33.3	25.0	12.0	27.0	23.9	17.3
견학내용의 발표등의	15.4	13.2	20.3	11.8	27.0	5.0	4.8	11.4	20.0	10.8	13.0	16.4
무 답	8.4	7.4	7.4	11.8	10.8	2.5	9.5	13.6	9.3	-	10.9	7.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들은 박물관 견학이 단순한 감상적 놀이나 관광형 견학이 되지 않도록 사후 지도 계획을 세워 자기 개발과 지식의 재창출을 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

<표 7>은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7>에서 보면, 박물관 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은 수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박물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전체의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교 당국의 관심 부족이 23.5%, 교사의 성의 부족이 14.0%이다. 이같은 경향은 지역별, 교사 급별, 교육 경력별, 성별에 있어서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다. 특히 도시의 경우는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들고 있으나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학교 당국의 관심과 성의 부족, 교통 문제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농산어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좋지않아 학생의 수송을 위한 교통및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의가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학교 당국에서 박물관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7>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

구 분 항 목	계	지 역 별			교 사 급 별			경 력 별			성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등	중 학	교 교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박물관 자료 부족	7.5	11.1	5.8	3.4	4.6	4.4	14.5	9.9	6.8	6.6	12.0	5.6
수업시간 부족	29.8	30.3	35.3	21.2	28.6	32.0	29.5	26.5	32.7	27.8	39.3	25.8
교사의 성의 부족	14.0	17.0	13.1	10.3	11.7	17.5	14.5	21.9	12.4	10.0	15.2	13.6
방법론의 미숙	8.2	9.3	6.5	8.6	8.3	8.7	7.4	6.2	8.7	9.0	7.1	8.6
교통상의 애로	15.0	12.0	13.5	22.2	22.8	11.2	7.4	11.5	12.1	23.1	7.2	18.3
학교의 관심부족	23.5	19.1	23.5	31.4	24.0	24.3	21.9	23.4	26.2	19.8	18.3	25.7
교사의 자질부족	2.0	1.2	2.3	2.9	-	1.9	4.8	1.6	1.1	3.7	0.9	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 방법

<표 8>은 교사들이 보는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8>에서 보면, 교사들이 보는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학교 당국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의 2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사의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17.6%, 박물관 교육을 위한 자료집의 발간 배부가 16.0%, 박물관 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15.0%이다. 이같은 경향은 지역별이나, 교사급

<표 8>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 방법

구분 항목	계	지역별			교사급별			경력별			성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초	중	고	5년이하	6-9년	10년이상	남	여
교사의 성의 있는 노력	17.6	20.6	14.9	15.6	15.2	22.9	16.5	26.5	16.2	10.6	26.4	13.9
박물관 교육 연수 실시	12.2	11.3	14.5	10.6	6.7	11.7	20.7	10.0	13.6	12.4	12.0	12.4
박물관교육을 위한자료집배부	16.0	17.8	15.9	12.2	16.5	16.6	14.7	17.4	14.7	16.7	13.6	17.0
학교장의 행재정 지원	29.2	25.0	31.8	33.9	36.8	23.3	23.3	24.1	33.4	27.4	26.4	30.4
박물관 자료의 순회 전시	10.0	11.3	8.4	9.4	11.2	5.8	11.7	4.1	8.5	18.4	7.3	11.0
박물관 교육의 교육과정화	15.0	14.0	14.5	18.3	13.6	19.7	13.1	17.9	13.6	14.5	14.3	15.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별, 경력별, 성별에 있어서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박물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성의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관외의 장으로 학생을 인솔하여 현장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사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없지않다. 학부형과 학교장의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박물관 교육에 필요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하거나 교사 연수시에 박물관 교육을 위한 과정을 넣어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고 연구 학교나 시범 학교를 두어 박물관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여 널리 보급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학생의 실태

이 항에서는 박물관 수업에 관한 학습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박물관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박물관에 관한 관심

<표 9>는 학생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9>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성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수학 여행때 박물관을 보고 와서 관심을 가

<표 9> 박물관에 관한 관심도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대단히 많다	23.4	33.0	19.2	19.9	25.6	22.3
조금 있다	49.2	50.0	51.7	51.2	49.2	52.8
모르겠다	12.4	6.0	15.3	15.4	13.1	11.5
거의 없다	11.8	10.0	10.8	10.9	9.2	12.0
전혀 없다	1.4	-	2.5	1.5	2.0	0.7
무 답	0.8	1.0	0.5	1.1	0.9	0.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지게 되었다는 것이 전체의 약 6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수업)를 듣고서가 17.0%, 친지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서가 10.5%로 주로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박물관에 가 본 것은 국민학교 6학년 때 수학 여행을 통하여 가보았다는 것이 전체의 67.2%로 가장 많고 친척집이나 친지 집을 방문하였을 때 가보았다는 것이 12.5%이나 되었다.

(2) 박물관 수업 경험

<표 10>은 학생들이 박물관에 가서 그곳에서 직접 수업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0>에서 보면, 박물관 수업의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은 전체의 약 56.6%로 과반수를 넘는다. 이를 학생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가 73.0%, 중학교 55.2%, 고등학교가 41.8%의 순으로 국민학교가 중등학교에 비하여 박물관 수업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가 초등에 비하여 박물관 수업의 경험이 적은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때문이라 생각된다. 박물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박물관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간 지도계획을 세울때 가능한 한 연중 1-2회 정도는 박물관에 가서 현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수업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박물관 수업 경험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있 다	56.6	73.0	55.2	41.8	56.1	55.2
없 다	42.1	26.0	43.3	56.7	42.6	43.4
무 답	1.3	1.0	1.5	1.5	1.3	1.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3) 박물관에 함께 간 사람

<표 11>은 박물관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가 보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1>에서 보면, 박물관에 함께 간 사람은 선생님과 반학생들이라는 것이 전체의 6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족과 함께 가보았다는 것이 25.0%, 친구나 선배와 함께 가보았다는 것이 15.7%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단체로 박물관을 견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학생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가족과 함께 가보았다는 것이 38.5%로 가장 많은데 중등학교는 선생님과 반학생들과 함께 견학하였다는 것이 가장 많다.

<표 11> 박물관에 함께 간 사람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나 혼자서	0.7	2.0	-	-	0.9	0.3
선배나 친구와 함께	15.7	27.0	8.4	11.9	17.1	14.4
가족과 함께	25.0	38.5	17.7	18.9	23.3	26.8
선생님 반학생과 함께	55.5	26.5	73.4	66.2	53.8	57.2
무 답	3.1	6.0	0.5	3.0	0.9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4) 박물관 견학의 목적

<표 12>는 학생들이 박물관을 견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2>에서 보면, 학생들의 박물관 견학의 목적은 문화재를 구경하면서 놀려고 간다는 것이 54.6%,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고 간 것이 25.7%,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려고 간 것이 12.9%로 관광형 견학이 과반수 이상이었다<sup>22)</sup>. 이러한 경향은 학생 급별이나

<표 12> 박물관 견학의 목적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려고	12.9	29.0	6.4	3.5	12.5	13.4
문화재를 구경하며 놀려고	54.6	36.5	66.5	60.7	56.4	52.9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25.7	28.5	21.7	26.8	23.9	27.4
문화재 애호심을 기르려고	4.5	4.0	3.9	5.5	4.9	4.0
무 답	2.3	2.0	1.5	3.5	2.3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성별에 있어서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박물관의 기능 중 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서비스적 기능을 감안할 때<sup>22)</sup> 학생들에게도 박물관이 쾌적한 휴식의 장소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박물관 견학시 가장 알고 싶었던 점

<표 13>은 박물관을 견학하였을 때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3>에서 보면, 박물관 견학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유물의 용도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는 것이 4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물을 제작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역사 및 유물을 제작한 조상의 노력과 그 정성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는 것이 약 18%, 유물의 가치와 특징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는 것은 10.1%로 학생들은 유물의 쓰임새에 대한 의문이 강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 급별이나 성별에 있어서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였다.

<표 13> 견학시 가장 알고 싶었던 점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유물의 쓰임새	46.7	41.5	50.7	47.8	43.2	50.1
유물을 만든 사람	6.5	7.5	7.4	4.5	8.8	4.0
유물의 가치와 특징	10.1	6.0	11.3	12.9	13.7	6.4
유물제작 당시의 역사	17.7	21.5	14.3	17.4	16.1	19.4
유물을 만든 조상의 노력과 정성	17.5	21.5	14.3	16.9	17.3	18.1
무 답	1.5	2.0	2.0	3.5	0.9	2.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6) 박물관 견학중의 태도

<표 14>은 박물관을 견학 할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4>에서 보면, 박물관 견학시 학생들의 태도는 차례로 줄을 서서 유물을 감상한다는 것이 전체의 59.8%, 유물을 보면서 설명 내용을 기록하거나 유물을 스케치한다는 것이

22) 1989년에 박물관 견학의 목적에 대한 대구교대생의 설문 결과를 보면, 감상을 위해서가 30%, 관광코스로서 할 수 없이 관람하였다는 것이 58%이었다. (鄭灌, <앞의 논문>, p. 43)

이는 초·중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박물관 견학의 목적이 관광형적 경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3) 吉村 典夫, <앞의 논문>, p. 106

<표 14> 견학 중의 태도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유물을 보면서 유물을 그리고 설명내용을 기록함	25.1	52.5	11.8	11.0	22.3	27.7
차례로 서서 유물을 보고 감상함	59.8	34.5	68.5	76.6	59.3	60.5
의문나는 것은 기록하고 전문가에 물음	2.3	3.0	2.5	1.5	2.9	1.7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대충 보고 지나감	10.6	5.0	16.2	10.4	12.8	8.4
무 답	2.2	5.0	1.0	0.5	2.7	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25.1%,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보고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10.6%로 학생들의 견학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학생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 학생들은 유물을 보고 스케치한다는 것이 52.5%, 중·고교생들은 유물을 조용히 감상한다는 것이 약 70% 이상이다.

이같은 차이는 국민학교 학생들은 신기한 유물을 처음 봄으로 유물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많기 때문이며, 중등학교 학생들은 역사 의식이 발달한 데다가 유물에 대한 선수 이해력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박물관 견학 후의 태도

<표 15>는 박물관을 견학한 후 학교에 돌아와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5>에서 보면, 박물관을 견학한 후의 학생들은 견학한 내용을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전체의 35.6%, 아무 생각없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30.5%,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21.5%, 감상문을 쓰거나 일기를 쓰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10.8%로 비교적 견학 내용을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하는 것등의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 15> 견학 후의 태도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견학내용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눔	21.5	27.0	16.7	20.9	18.7	24.4
견학내용을 감상문이나 보고서를 씀	10.8	21.5	6.9	4.0	10.8	10.7
견학후에는 아무생각없이 잊어버림	30.5	13.0	39.9	38.3	34.1	26.8
학습한 내용과 관련지어 되새김	35.6	36.0	35.0	35.8	34.1	37.1
무 답	1.6	2.5	1.5	1.0	2.3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태도는 중등에 비하여 초등의 비율이 높다. 중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견학 후의 학생들의 태도는 교사의 지도 계획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는 반드시 감상문이나 보고서 등을 써서 제출하도록하고 훌륭한 보고서와 감상문 등은 교실 뒤편 벽에 붙이거나 학교 어린이 신문 등에 게재하여 다른 학생이 읽어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박물관 견학후의 느낀점

<표 16>은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느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6>에서 보면, 박물관 자료를 견학한 후에 학생들이 느낀점은 조상들의 슬기와 솜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전체의 2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박물관 견학의 보람을 느껴 다른 박물관에도 가보고 싶었다는 것이 15.7%, 견학시에는 안내원의 자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10.9%이다.

학생 급별로 보면, 국민학생은 조상의 슬기와 솜씨를 알게되었다는 것이 43.5%로 가장 많은데 비해서 중학생은 조상의 슬기와 솜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20.2%, 다른 박물관에도 가보고 싶었다는 것이 13.3%, 고등학교 학생은 안내원의 자세한 설명이 아쉽다는 것이 21.4%이다. 박물관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안내원의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견학후에는 안내원에게 의문점을 질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박물관에서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친절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6> 견학후의 느낀점

구 분 항 목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조상의 슬기와 솜씨를 알게 되었음	25.2	43.5	20.2	11.9	21.3	29.1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음	5.1	4.5	6.9	4.0	6.2	4.0
조상의 생활상을 알게 되었음	6.0	11.0	3.9	3.0	3.3	8.7
문화재 애호심을 갖게 되었음	8.1	6.5	11.3	6.5	7.9	8.4
별다른 느낌이 없음	6.5	4.5	10.8	4.0	6.9	6.0
다른 박물관에도 가보고 싶었음	15.7	22.0	13.3	11.9	18.0	13.4
안내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10.9	2.0	9.4	21.4	11.8	10.0
조상들이 살던 시대로 가보고 싶었음	0.5	-	1.5	-	1.0	-
무 답	22.0	6.0	22.7	37.3	23.6	20.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9) 박물관 견학시 가장 어려웠던 점

<표 17>은 박물관을 견학할 때 가장 어려웠거나 불편하였던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표 17>에서 보면, 박물관 견학시 어려웠던 점은 시간의 부족으로 유물을 자세히 볼수 없었다는 것이 전체의 약 51.0%,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30.9%, 설명판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약 10%의 순으로 이러한 경향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 급별이나 성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박물관을 견학하려고 할때에는 충분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안내원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설명 내용은 한글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판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표 17> 견학시 가장 어려웠던 점

항 목	구 분	계	학 생 급 별			성 별	
			국 교 생	중 학 생	고 교 생	남	여
시간이 부족으로 자세히 볼 수 없었음		51.1	41.0	58.1	54.2	58.7	43.5
기록된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웠음		9.6	16.0	6.4	6.5	8.2	11.0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기 어려웠음		30.9	31.5	27.1	33.8	23.9	37.8
사람이 많아 조용히 볼 수 없었음		6.1	7.5	6.9	4.0	5.6	6.7
무 답		2.3	4.0	1.5	1.5	3.6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IV. 박물관 교육의 방법

### 1.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 (1) 박물관 자료의 활용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안을 들 수 있으나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와 교과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방법으로는 분산적 접근법과 주제 접근법이 있다<sup>24)</sup>.

##### 1) 분산적 접근법

이 방법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通史學習 과정에서 본시 수업을 진행해 가다가 본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박물관 자료가 나오면 그때 마다 박물관 자료를 활용하고 본시 수업을 진행해 가는 방법이다. 이때에 교사는 실물을 제시하면 효과적이겠으나 실물을 제시할 수 없을

24) 朴泰岩 外, <앞의 책>, p. 352

때는 박물관 자료를 사진 자료화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모조품이나 모형을 제시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조품의 경우 자료의 정교성이 문제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산적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진도 계획을 세울때 먼저 교재 단원을 분석하여 어느 단원의 몇 차시에 박물관 자료가 필요한 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산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재 분석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2> 교재 추출 양식

교 과	학년 학기	차 시	주 제	학습요항	학습목표	자 료 명	박물관자료명	활용방안

분산적 접근법에 있어서는 도입이나 전개·정리단계 등 수업 과정에서 필요시에 5-7분정도 박물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박물관 교재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제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주제 접근법(단원 접근법)

이 방법은 다양한 박물관 자료 중 하나의 자료(석기, 청동기, 철기, 토기, 자기, 서화, 민속 자료, 출판 인쇄자료 등)를 주제로 선정하여 사실 탐구와 의미 탐구를 함으로써 그 자료를 사용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박물관 자료를 보는 눈과 능력·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학습 시간은 1회에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주제 접근법에 의한 지도 방안은 매시간 적용할 수 없으며 연간 2-4회 정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업 절차와 본시 수업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제 접근법의 수업 절차

① 주제의 선정(제 1단계)

주제 접근법에 있어서 박물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제 1단계는 박물관 자료 중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료를 주제(교재단원)로 선정하는 일이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여 선정함이 좋으며 자료가 풍부하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자료를 주제로 선정하되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단 검사(제 2단계)

주제가 선정되면 교사는 수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하여 취향도, 기존 학습도, 학습 환경, 자료 처리 능력, 학습 욕구 등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인지적 영역 외에도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진단도 동시에 실시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진단 검사 결과는 지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여야 한다.

### ③ 지도 계획 수립 (제 3단계)

진단 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의 바탕 위에서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과제를 분석하여 학습의 기본적인 사항과 학습의 위계·계열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정리 및 개발·활용 계획, 학습 형태 및 방법, 시간 배당,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안 작성,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 역사 의식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지도 과정 (제 4단계)

지도 계획이 수립되면 지도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간다. 이때 교사는 학습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박물관 자료 활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비판, 해석, 종합, 발표, 토론을 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료 제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 자료의 용도와 특징, 자료를 제작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자료의 가치, 자료의 발전 형태,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한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⑤ 평가 (제 5단계)

발표, 토의가 끝나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보고서의 체제, 작성 요령을 설명한 다음 보고서 양식을 학습자에게 내주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보고서를 거두어 교사가 읽어본 후 훌륭한 보고서는 뒤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읽어보도록 한다. 보고서를 거둔 뒤에 진단 검사를 한 문항과 수업 후에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함께 평가하되 전후 비교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수업 절차를 도식하면 <도 3>과 같다.

#### 나. 주제 접근법을 위한 본시 수업 모형

박물관 교재 단원의 수업 절차 중 제 4단계인 지도 과정은 본시 수업 과정을 말한다. 본시 수업과정의 모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식해 보면 <도 4>과 같다.

이상과 같은 수업 절차나 모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보다 유용한 모형을 개발 활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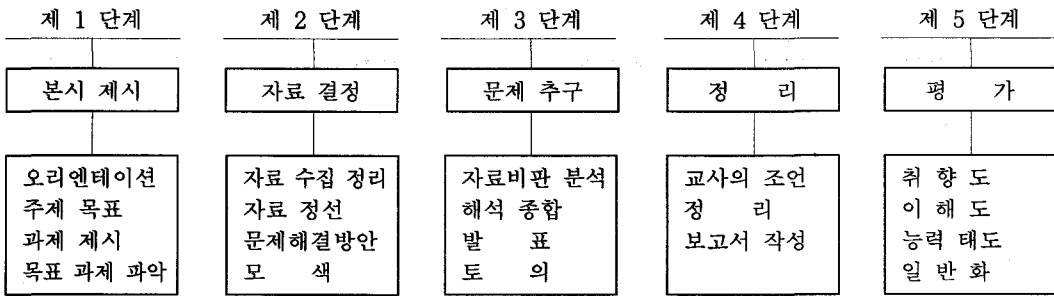
### (2) 박물관 수업을 통한 지도

박물관 수업이란 박물관에 직접 가서 박물관 자료를 견학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그곳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 수업 연간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분석하여 수업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있는 박물관을 선정한 다음에 교재 단원(주제)과 박물관 자료를

<도-3> 박물관 수업의 절차



<도-4> 박물관 교재 단원의 본시 수업 모형



<표 4> 박물관 수업 연간 계획안

교 과	학년 학기	수업일시(차시)	주 제	학습요항	자 료 명	박물관명

관련시켜 교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교재 재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박물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서 박물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주제이어야 한다. 주제가 선정되면 그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박물관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즉 박물관 수업을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받아야 하며, 수업 장소, 활용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수업 준비와 수업의 협조상을 상호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 수업의 승인을 받고 박물관측의 협조가 약속되면 교사는 박물관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업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박물관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견학을 통한 자료 수집과 실제 수업의 단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수업의 절차와 시간 배당, 유의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업 계획이 완료되면 박물관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된다. 박물관 수업을 할 때는 박물관의 교육담당자(curator)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때로는 그를 자료 인사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마치게 되면 감상문을 쓰도록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형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같은 박물관 수업을 위해서는 주제 접근법에 의한 수업 절차나 본시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박물관 수업은 한 주제에 2-3 시간이 소요되므로 매시간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연중 2-4회 정도 수업이 가능하다.

## 2. 교과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

### (1) 일상 교육을 통한 지도

이 방법은 학교의 일상 교육 활동 중 박물관 자료를 연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교 게시판이나 복도 좌우의 벽 또는 교실 뒤쪽의 벽에 게시하거나 자료를 전시하여 학생 스스로 보고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게시나 방송을 통한 지도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2) 견학을 통한 지도

이 방법은 소풍이나 수학 여행시 박물관 견학을 반드시 계획에 넣어 박물관 자료를 관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교에서 멀지 않는 곳에 박물관이 있다면 박물관으로 소풍을 가서 그곳에서 박물관 자료를 보면서 소풍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학 여행시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법은 학습 내용을 실물과 관련시켜 봄으로써 학습 경험과 지식을 재창출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박물관 견학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연간 계획은 학교의 교육 활동속에 포함시켜 교육 과정 운영과 행사 교육등과 관련시켜야 한다. 박물관 견학을 위한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표 2> 박물관 견학 연간계획서(예시)

박 물 관 명	견학시기(학년학기)	견학학년(명)	관련교과	관련행사	견학유형
국립 중앙박물관	2학년 1학기	6학년(200명)	국 사	수학여행	단체견학
국립 경주박물관	1학년 2학기	5학년(100명)	사 회	소 풍	단체견학

박물관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 계획, 견학 중의 계획, 견학 후의 지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고 박물관 견학에 관한 공문을 학교 당국이 해당 박물관에 보내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박물관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가정에도 통지하여 협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견학 계획을 세울때는 견학 박물관을 먼저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견학 목적, 교통편과 거리, 견학 경비, 일시, 견학할 자료, 견학 소요 시간, 식사, 견학

방법과 관점, 선수 학습 내용과의 관련, 준비물, 유의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전시된 자료의 설명판의 전문적 해설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자나 설명자를 필요로 한다.

견학 중에는 자료의 난해한 해설에 대한 지도 방법, 메모지와 필기 용구의 지참으로 스케치하도록 하고, 의문점을 기록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 견학이 단순한 호사적 관광이나 일시적 감상적 놀이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박물관측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 박물관은 친절한 안내자와 협조자로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다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 견학 후에도 일회적 감상이나 관광에 그치지 않고, 견학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견학 자료를 수업 시간에 관련 지도하여야 하며, 견학후의 평가와 반성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찾아가 보고싶은 박물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박물관 견학후에 학생 스스로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한 지도

일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견학하고 견학 감상문이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방학때의 박물관 견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제물을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종합 박물관이나 미술관, 특수 박물관을 찾아가 자료를 견학하고 이를 스스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박물관이 역사 탐구의 장으로서 반드시 견학하여야만 하는 곳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 (4) 특별 활동을 통한 지도

이 방법은 향토 문화반이나 역사 지리반, 또는 역사반 등을 조직하여 도서관에 가서 박물관에 관한 문헌 조사나, 휴일이나 공휴일, 방학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활 반원을 구성할 때는 반의 인적 구성이나 특성(남·여, 흥미 중심, 지역 중심, 연령 중심 등)을 고려하여 조직하고 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습 경험이나 역사적 지식을 재창출 하도록 하고 역사적 자료 처리 능력과 태도를 길러 민족 문화에 대한 애호심과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은 역사 수업에 있어서 필히 수반되어야 할 학교 교육의 장이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박물관은 자료의 보고이며, 생동적인 역사 수업의 장임을 알고 박물관 수업을 학교 교육과 관련시켜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 박물관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박물관의 교육용 자료 즉 녹음 테이프, 영상 자료, 게시 자료 등을 빌려와 활용하도록 하며 자료를 대여 받아 전시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 인사를 초빙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 음 말

본고는 사회과 역사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제 본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박물관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맺음말에 대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인류의 생활과 역사·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전시하며, 이를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사회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박물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수족관·민속 박물관·민족 박물관·동물원·식물원·표본 전시관·생태원·자연 보호 구역·천문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박물관이 갖는 기능은 종래의 고전적(1차적) 기능으로부터 오늘날에는 현대적(2차적) 기능인 사회 교육과 서비스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박물관이 단순한 수장고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이용자를 위한 교육적 기능과 휴식·오락의 서비스적 기능을 다할 때 사회 문화 교육 기관으로서의 평생 교육의 일익은 물론, 학교 교육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역사 학습의 탐구의 장으로 생동적인 실물 자료를 직접 접하여 학습함으로써 민족 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상들의 문화 창조 능력과 슬기 등을 이해하여 문화적 자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산 역사 교육의 장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수는 1994년말 현재 등록 박물관 68, 국립 박물관 22, 대학 박물관 77, 모두 167개이며 이들 박물관은 거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등록 박물관 68개중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은 24개, 박물관 학교를 운영하는 박물관은 15개이다.

박물관 교육의 실태를 보면,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사 대부분이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박물관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수업 시간의 부족이 전체의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교 당국의 무관심이 23.5%, 교통상의 어려움이 15.0%, 교사의 성의 부족이 14.0%이다. 효과적인 박물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의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의 2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사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17.6%로 학교 자체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박물관 수업에 관한 학습자의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에 가 본 경험은 6학년 때 수학 여행을 통하여 가보았다는 것이 전체의 67.2%로 과반수 이상이 된다. 박물관 견학시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점은 자료의 쓰임새가 약 47%로 가장 많았다. 박물관 견학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 부족으로 자세히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전체의 51.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30.9%, 전시 유물의 해설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약 10%였다. 이는 박물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박물관 측에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박물관 교육의 방법은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와 교과 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 방법이 있다. 교과활동을 통한 지도 방법 중에는 주제 접근법과 박물관 수업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이방법은 연중 2-4회 정도 가능하며 1회에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교과 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방법 중에는 견학이나 휴일, 방학을 통한 지도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박물관 견학을 세울때는 견학전의 사전 계획, 견학 중 계획, 견학 후의 지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물관 견학이 단순한 관광이나 감상적 놀이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 한번 찾아 가고싶은 박물관이 되도록 지도 교사의 성의있는 지도 계획과 박물관 당국의 친절한 안내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물관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학교와 박물관 양측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의 측면에서 볼 때

첫째 :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교사가 아무리 성의를 가지고 박물관 견학이나 박물관 수업을 하고자 하여도 학교 당국에서 무관심하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그 계획은 실시할 수 없다. 사회과 역사 수업은 현장 답사나 현장 견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교과이다. 학교 당국의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박물관 견학이나 수업을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박물관 수업 담당자나 박물관 견학 담당 교사의 성의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아무리 입시 위주의 교육이 중요하다 해도 학습 내용을 현장과 관련시켜 지도하고,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담당 교사들은 연중 박물관 견학 계획이나 박물관 수업 계획을 세워 사전에 박물관측과 협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박물관과 예약을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박물관의 전문 인사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 담당 교사는 항상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박물관을 견학·관찰하고 조사·연구하여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 교사는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울때 박물관 교육을 학교 교육 활동에 포함시켜 연간 계획을 세워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측에서 볼 때

첫째 : 각 박물관에서는 해당 박물관에 관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 홍보함으로써 박물관을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박물관 탐방 시간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해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각 박물관에서는 각급 학교로부터 박물관 견학 계획이나 수업 계획을 미리 받아 예약 관람과 수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견학이나 수업을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거나 자원 봉사자를 모아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에게 친절한 안내와 설명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박물관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연수와 전문 연수 코스로 나누어 지도함으로써 박물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 박물관에서는 고정 전시(Indoor)에만 그치지 말고 관외 전시(Outdoor) 즉 이동전시(순회전시)를 통하여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박물관 자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 박물관에서는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녹음 테이프나 영상 자료(VTR, 비디오, 영화, 슬라이드 등), 팸플렛, 사진 자료등 박물관 교재 자료를 제작 홍보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 각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실을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보충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 사회 문화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교 교육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친절한 협조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 각급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의 해설판은 한글로 쉽게 해설해 줌으로써 학생들과 일반 관람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질 때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박물관 교육은 현재보다 개선·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